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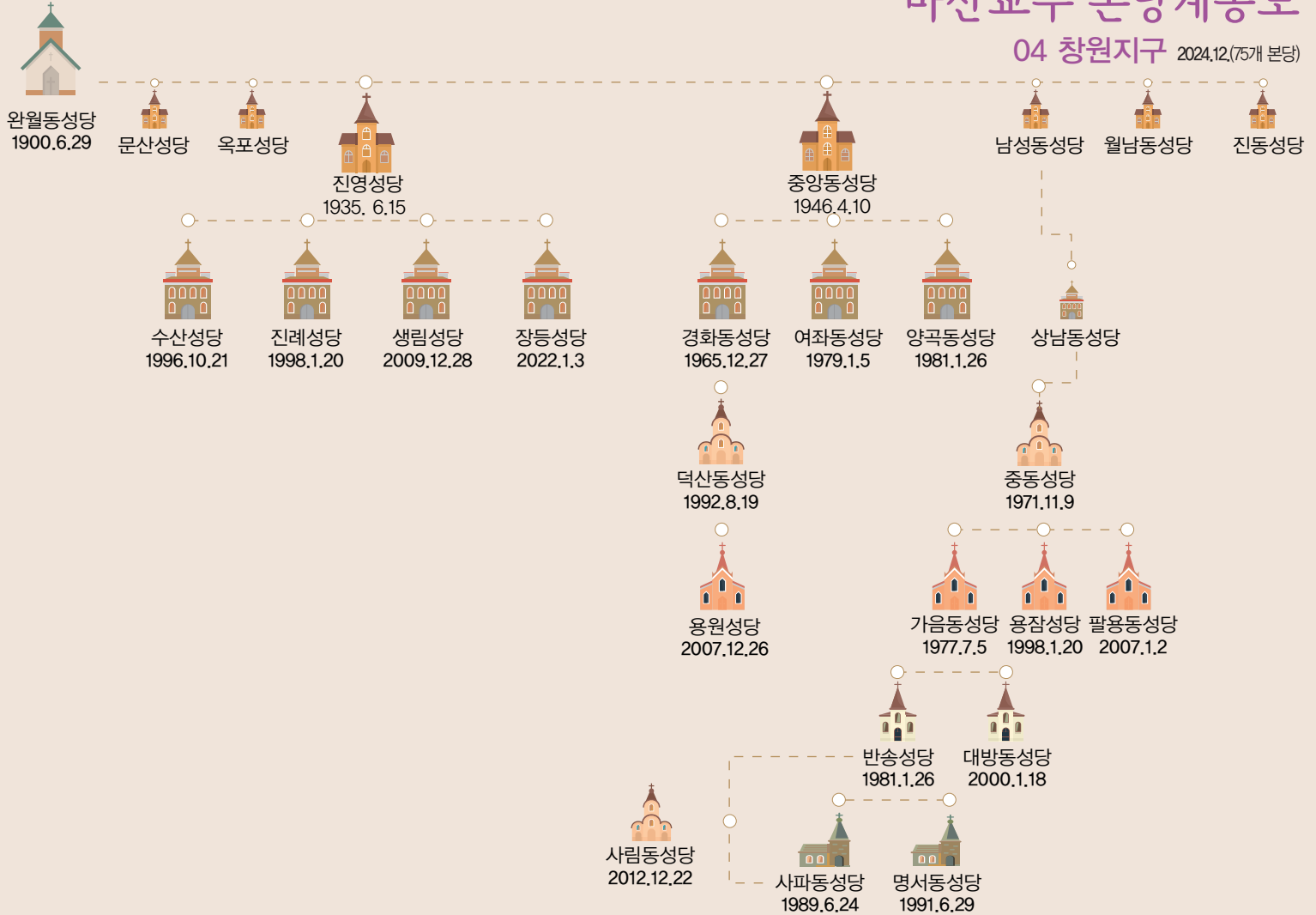


가톨릭 마산

주님 공현 대축일
2025년 1월 5일
제2651호

마산교구 본당계통도

04 창원지구 2024.12.(75개 본당)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이사 60,1-6
-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 독 서 에페 3,2,3-5-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 음 마태 2,1-12
- 영 성 체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계강준 사도요한 신부

양덕동본당 보좌

“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야 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님의 빛을 따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삶”

우리는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빛이 온 인류에 드러났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믿음의 여정으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온 세계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며 보여주었던 신뢰와 믿음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었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참된 기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야 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불평등과 환경문제, 정치적 갈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도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빛을 더욱 밝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우리 교구 부제 2명과 수도자 1명이 사제품을, 2명의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시어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 **일시:** 2025년 1월 8일(수) 14:00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례:** 손삼석 요셉 주교

사제품

부제품



임상영 토마스 아퀴나스
첫미사: 사파동성당
2025년 1월 9일(목) 19:30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
첫미사: 고성성당
2025년 1월 10일(금) 19:30



김지승 알렉산델
첫미사: 삼위일체수도회
2025년 1월 9일(목) 19:30



박시원 베네딕토
고성성당



조효광 프란치스코
고현성당

지난 교구보에 안내되었던 조효광 프란치스코 부제품의 본당이 고성성당에서 고현성당으로 정정합니다.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 사제품 첫미사 일시는 1월 10일(목)에서 1월 10일(금)로 정정합니다.

1내가 기억하는 사제 신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구 사무처에서는 교구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보에 “내가 기억하는 사제”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간 우리 교구 선종 신부님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돌아가신 신부님들과의 특별한 교류와 기억을 간직한 신자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A4 용지 12pt 사이즈 2/3 정도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소속 본당/성명/세례명/연락처

보낼 곳: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 담당
(메일) media2@cathms.or.kr

홍주 성지

민창홍 요한 시인 (시, 글, 사진)/ 가톨릭문인회



홍주성지 성당 제대

저작거리 지나서 조양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
동헌 지나고 감옥으로 발길 옮겨
십자 형틀에 남은 고통 삼키며
참수터 생매장터까지의 순례길
먹먹하여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천주님만 믿는다는 고백
또 다른 천국에 살리라던 외침까지
배교의 유혹도 뿌리치고
당당하게 하늘 문 향하니
장날처럼 북적댔으리

이름도 알 길 없는 생매장된 사람들
복소리 같은 아우성으로 벽을 두드려
간절한 기도의 문 열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섰으리
거룩한 이름 앞에 머리 숙인 목주 든 행렬
십자가의 길 따라 이어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개울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겨울 햇빛은 순교터 붉게 물들이고
기울어진 오래된 소나무 성지를 받든다
거대한 소나무 홍주(내포)를 받든다



참수터



홍주감옥



홍주순교성지 및 제대

홍주 성지

홍주성지는 충청도의 첫 순교터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성지이다. 홍주지역(내포지역)은 1784년 한국천주교 창설초기부터 충청도의 첫 신자인 이존창의 영향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어 신자가 제일 많았던 곳이다. 이 지역은 행정, 군사의 요충지인 홍주목과 진영이 있던 관계로 순교자 수가 기록상으로 신해~정사박해 동안 8명, 이어 신유~기해박해 동안 4명, 병인박해에 200명이나 된다. 무명 순교자까지 1,000명이 넘는 순교자를 탄생시킨 거룩한 성지이다.

홍주성지에는 6곳의 순교터가 있다. 고문과 재판으로 피로 얼룩진 목사의 동헌과 진영장의 동헌, 그리고 감옥터, 조리돌림을 당한 저작거리, 참수터, 생매장터가 있다. 심문과 고문, 죽음의 형장까지 1.5km 거리의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홍주성지성당과 순례객 센터는 홍주읍성 북문 근처 새 보금자리로 이전했다.

순종하는 삶

김순화 베로니카 시인/ 가톨릭문인회

건강 검진 결과 유방암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 주면서 모양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한 나에게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병원 문을 나오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상담 심리 학위를 받기 위해 지난 1년은 거의 밤을 세우듯 보냈던 시간이었기에, 스스로도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바로 암 선고라니 너무 절망스러웠다.

성당에 앉아서 지금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렇게 3일을 울었다. 4일째 되던 날 마음이 조금은 담대해졌다. 주변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듯도 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초음파 사진들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내 상황과 유사하여 어쩌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일째 되던 날에는 내가 진짜 암이라면 잘 치료 받자는 생각으로 더 담대해졌다. 그러면서도 잠자기 전에는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8일째에는 예전에 천주교 자살 예방 센터에 상담 자원 봉사를 신청해 놓았는데 담당 수녀님과 연락이 닿아 도움을 드리기로 했다. 9일째 되던 날 미사 시간에 나는 뜻밖의 체험을 했다. 예수님의 왼쪽 가슴에 금빛의 혹 모양이 확연하게 보였다. 떨렸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아픈 위치와 똑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 나는 올해 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늘 성당에 가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이 시점에 보인 것이 신기했고, 마치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 드디어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다행히도 결과는 양성 종양이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정말 감사해서 다시 눈물이 났다. 다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먼저 매일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던 스승님께 감사했고, 조직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새로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선물해 준 동료 선생님에게 고맙았다. 동료 선생님은 아마도 내가 매일 미사를 참여했던 시간들이 나를 치유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데 깨달음을 얻은 듯 눈물이 났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성당에 갔던 시간들은 그저 내가 나의 죄를 씻고자 갔던 거였는데, 주님은 나의 병에 대한 치유를 해주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느낌은 매우 강렬했고,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게 또렷해졌다. 주님은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나를 남기셨고, 어쩌면 그것이 상담자로서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 같았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잘 완수하려 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내가 가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목숨을 갈구하지 않고, 기쁘게 따라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교구장 서리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7일(화) 19:00
장소: 마산교구청 성전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8일(수) 14:00
장소: 창원문성대 실내체육관

해성고등학교 졸업장 수여식

일시: 1월 9일(목) 10:30
장소: 해성고등학교

꾸르실로 강의

일시: 1월 10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7일(화) 19:00 장소: 마산교구청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8일(수) 14:00
장소: 창원문성대 실내체육관

임상영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첫미사

일시: 1월 9일(목) 19:30
장소: 사파동성당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 신부 첫미사

일시: 1월 10일(금) 19:30
장소: 고성성당

장례지도사 4차 교육

일시: 1월 10일(금) ~ 12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카리타스봉사단 정기총회

일시: 1월 11일(수) 장소: 마산교구청

진영성당 김순곤 비오 신부님 은퇴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진영성당

위원회/기관/단체

평협 상임위원회 회의

일시: 1월 11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루멘회 정기총회

일시: 1월 11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연령연합회 제19회 정기총회

일시: 1월 18일(토) 14:00
장소: 마산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본당 연령회 회장단 및 장례지도사자격증 소지자

ME 제227차 주말

일시: 1월 24일(금)~26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기 타

예수회센터 불학기 동영상 강좌 / 3월 개강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도라제국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송봉모 신부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신곡>지옥편: 배신과 우정, 김산춘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눈꽃산행: 1월 17일~19일, 1월 23일~25일
2월 8일~10일, 2월 14일~16일, 2월 22일~24일
성지순례 추자도포함: 3월 1일~4일, 3월 9일~12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 3월 22일~24일, 3월 28일~30일
접수: 02:773-1463/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한라산포함: 2월 7일~9일, 2월 21일~23일, 2월 25일~27일
자연순례: 3월 1일~3일, 3월 8일~10일, 3월 18일~20일
추자도포함: 3월 13일~16일, 3월 23일~26일, 4월 5일~8일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 11일(월)~25년 2월 14일(금)
문의: 02:745-8399, <http://ci.catholic.ac.kr>

2025년도 기숙사생 모집(여학생)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 영성센터 02:726-0700,0701
www.jjscen.or.kr 공지사항 참고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일시: 2025년 2월 7일(금)~9일(주일)
대상: 건강한 고1~35세 미만 남성
마감: 2025년 1월 31일(금)
문의: 010-6221-3520

부산경남 ICPE 정체성 피정

일시: 1.25(토)~26(주일)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9776-9959(ICPE플친 채팅)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수)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운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구 인 광 고

진동가르멜수도원 피정의 집 주방근무자

숙식가능, 급여 200만원
구비서류: 이력서 1부
문의: 010-8583-2625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6일(월) 19:00	남성동성당	루카 16,19-31 골짜기를 메워라	진홍장 다두 회장 (삼성산기도회)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2/14~2/25 화녀 이탈리아(대한항공) 455만원
3/9~3/20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3/2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4/12 산티아고 도보 499만원

경대약국

·친절한 복약지도 진주 외 지역은 전화상담도 가능
·영양 복약상담

경상대병원 처방약은

경대약국에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8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주차타워 맞은편)

055.755.2020

하종인 율리아노, 도승현 엘리사벳



고현본당 연도경연대회

고현본당(주임: 여인석 베드로 신부)은 11월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연도 경연대회를 11월 24일(주일) 개최하였다. 연도경연대회는 본당의 32개의 브레시디움이 참가하였다. 본당신부는 “연도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만 있는 자랑스런 상장례 유산이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신자들이 연도를 익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마산교구 희년개막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년(聖年) 문 개방을 시작으로 2025년 희년의 막이 올랐다. 희년은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주교단은 2024 추계 정기총회에서 희년 개막 미사(2024년 12월 29일)와 폐막 미사(2025년 12월 28일)를 교구별로 거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산교구는 12월 29일 양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희년 개막 미사를 봉헌했고, 미사에는 교구청 사제와 수녀, 신학생, 그리고 양덕동 주교좌 성당의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다.



2024년 마산교구 신학생동계연수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가 성소국(국장: 김형렬 요셉 신부) 주관으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연수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와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의 강의, 그리고 1월에 있을 사제-부제 서품식, 초등부 신입 복사 학교 준비로 이루어졌다. 연수 중 선배 사제들이 방문하여 신학생을 격려하고 조언해 주는 자리도 가졌다.



가톨릭 신자의 토정비결

황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정초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살기를 바라며, 초하룻날 동이 트는 새날의 첫 태양을 맞이하려 근처의 높은 산을 오르며, 두 손을 모으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을 하기도 하고, 토정비결(土亭秘訣)에도 관심을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토정비결을 미신이라고 믿어, 망설이기도 하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선을 넘기도 하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계름칙하여, 고해 성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선친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성호경을 정성들여 굿고 주모경을 외우고 나서, 눈을 감고 성경책 한 곳을 잡히는 대로 펼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그곳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당면한 그 일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라 생각하고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부제품을 받기 위해 대 피정을 갈 때였습니다.(1980년 1월) 마음이 무척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 사람으로 합당한가? 끝까지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것이 어릴 때 저의 아버지가 성경책을 펼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성호경을 정성들여 굿고 주모경을 외우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는 대목이었습니다.(루카 22,31-34) 저의 세례명도 베드로입니다. 내가 배반하다니! 가슴이 쿵 했습니다. 차라리 신부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 되면 안 되지! 이런 상태로 일주간의 대 피정을 하러 눈 쌓인 알프스의 산 중턱에 있는 어느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암시는 무엇일까? 착잡한 마음을 안고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혼자 거닐며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그 묵주는 제가 1964년 소신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산 하얀 묵주로 항상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간직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는 그 묵주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정 중 하루는 눈 덮인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그곳에서 꼬마들이 눈싸움을 하고 놀기에 나도 그들과 더불어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 피정하던 수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산보를 하면서 다시 묵주기도를 하기 위해 호주머니에서 묵주를 찾았는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묵주를 잃어버리다니. 17년간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 눈싸움 장소에 돌아가서 그 묵주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넓은 눈밭에 그 하얀 묵주를 어찌 찾겠는가?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다: 내가 신부가 되지 말라는? 허탈한 마음으로 피정집으로 돌아와서, 온갖 곳을 다 뒤지다 마지막으로 어제 입었던 외투의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그 묵주를 찾았을 때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기쁨, 그리고 안도감: 나도 신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반 예고”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그런데 묵주를 찾고 나서 읽어보니 이번에는 그 대목 가운데서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의심하고 절망하랴! 이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토정비결이 아닐까요?